

**회복의 책인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점 -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

6/5 월요일

아침의 누림

마 20:25-28

25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26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27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28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

마 23:10-12

10 또한 지도자라 불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11 여러분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12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벧전 5:1-3

1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3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 떼의 본이 되십시오.

---

천연적인 관념, 사람의 관념에 따르면 인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다. 그러나 마태복음 20 장과 23 장에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인도 직분에 대한 주님의 관념은 천연적인 관념과는 정반대이다. 물론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인도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인도 직분이 노예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인도하는 이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참되고 정직하다면, 우리는 인도하는 직분은 좋아하지만 노예가 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노예라면, 기꺼이 화장실을 깨끗이하고 마루의 먼지를 청소하고 의자를 정돈하고 안내 봉사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인도 직분에 대한 세상적인 관념과는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그분의 백성 가운데에는 오직 한 인도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마 23:10).(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3 권, 진리 메시지, 3 장, 468-46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인도 직분은 공식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다. ... 인도 직분은 영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 가장 큰 역량을 지닌 사람이 인도자이다. ... 오순절 날에는 베드로에게 가장 큰 역량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15 장에서는 야고보에게 있었다.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이 원칙을 더 잘 설명해 준다. 사도행전 13 장 2 절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사울)보다 먼저 나온다. 그러나 그들이 위임을 수행할 때, 바울의 영적인 역량이 더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이 인도했다(행 13:9). ... 바나바는 바울의 역량이 자신의 역량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에 대해 바울과 다투지 않았다.

이 모든 사례에서 밝혀 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인도 직분은 공식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조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인도 직분은 언제나 영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인도 직분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제쳐 두시려고 이렇게 정하셨다. 구약에서 ... 결코 세 명이나 네 명의 왕들이 동시에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약에서 주님은 한 사도가 아닌 열두 사도를 임명하셨다. 후에 주님은 다른 이들, 가령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더하셨다. 나는 많은 사도가 있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고린도후서 11 장 13 절에서 거짓 사도들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는 항상 다수의 장로들이 있다. 장로 직분이 복수라는 점은 교회 안의 인도 직분이 실제로 고정적인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나를 주님의 회복의 인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상황에 대해 분명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진리의 실행과 반대되는 것이다. ... 나는

교회들이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반대로 많은 때 여러 교회의 장로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 달라고 내게 간청했을 때, 나는 항상 그들에게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라고 말했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조직화된 인도 직분이 없다. 오래전에 교파를 떠날 때 우리는 주로 계급 제도와 조직을 떠났다. ... 중요한 것은 어떤 형제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신약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한 몸임을 계시한다. 지체는 많을지라도 머리는 하나뿐이다. ... 중간 머리들을 통해 명령을 내리시지 않고 모든 지체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 한 머리가 있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조직이 없고 다만 하나의 유기체인 몸이 있을 뿐이다. ... 몸은 유일한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3장, 471-47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3장;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55장;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68장

## 6/6 화요일

### 아침의 누림

#### 딤후 1:3-4

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

#### 행 2:42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떤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 살후 2:13

13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 고후 4:1

1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 엡 4:3-6

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5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

신약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사도들 스스로는 교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급한 말씀만이 권위를 가진다. 만일 교회들과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곧 하나님의 신약의 말씀에 따라 전진해 나간다면 사도들에게는 교회들을 다룰 권위가 없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빛나가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상황을 처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 안에서 온유한 영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고전 4:21) 그는 또한 자신이 영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죄 있는 그 사람을 처리하고 쫓아냈다고 그들에게 말했다(고전 5:3-5). 사도들의 권위는 영적인 것이며 그들의 말씀의 사역 안에 있다. 사도들은 교회의 사무에 개입하는 위치상의 권위를 갖지 않는다.

오늘날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는 사실상 천연적인 의미에서의 인도 직분이 없다. 사도들 가운데에는 공식적이고 영구적이며 조직적인 인도자가 없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의 장로들의 경우도 동일하다. 더욱이 모든 교회들은 동일한 위치에 있고 통합하는 조직이 없다. 마찬가지로 일과 관련해서 모든 권역과 구역과 분야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 ... 조직도 없고, 계급 제도도 없으며,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인도자도 없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주 예수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고 높인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3장, 477-478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에는 오직 한 사역만 있고, 이 사역에는 오직 한 인도 직분만 있다. 신약 사역의 인도 직분에 관한 진리가 있기는 하지만, 주님은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인도자로 세우지 않으셨다. 사도행전 초반부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비교 행 1:15, 2:14). 그러나 주 예수님은 베드로를 공식적인 인도자로 세우지 않으셨다. 인도 직분은 생명의 따라, 실지적인 필요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이었다. 인도 직분은 생명의 성장에

의해 형성되고, 필요에서 나온 결과이다. 필요가 없다면 인도 직분은 나타날 수 없다.

사역이 하나이므로(행 1:17, 25) 인도 직분도 하나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주님과 그 영께서 모두 하나이시므로(엡 4:4-6) 인도 직분도 유일하다. ...유일한 인도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 영의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엡 4:3). 오늘날의 기독교가 분열된 것은 너무 많은 인도 직분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자마다 한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무리가 곧 그의 인도를 받는 영역이며, 그 영역이 하나의 분파가 된다. 따라서 인도 직분의 문제를 합당하게 적용하지 않거나 인도 직분에 대해 합당한 관점을 갖지 못한다면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인도 직분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산출되고 강화되며 제한받고 통제받는다. 디모데전서 1 장 3 절과 4 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하도록 당부했다. 디모데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곳에 있었다. 디모데는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몸을 얻으시고 삼일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표현을 얻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역자는 누구든지 이러한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 ...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다르게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었다. ... 디모데전서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도록 명령하는 어떤 인도 직분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신약 경륜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19 장, 271-27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3-4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성육신, 포함, 강화, 1-4 장

## 6/7 수요일

### 아침의 누림

#### 고후 13:10

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사람들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고전 4:17

17 이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생활 방식,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

#### 살후 3:9, 12, 14

9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러분의 본이 되어,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2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권유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14 누구든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기억해 두고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 행 2:42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 딤후 3:10

10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실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긴밀히 따랐으며,

---

신약은 사역에서 인도하는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한 가정에 대표 권위가 있을 뿐 아니라 인간 정부에도 대표 권위가 있다. 대표 권위들이 없다면 지구 전체는 무정부 상태로 무질서하게 되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 될 것이다. ... 성경은 교회생활과 사역 안에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사역에서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표 권위는 건축하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후 13:10). ... 하나님의 대표 권위는 인도하는 이들의 가르침에 있었다 (고전 4:17 하-21, 7:17 하, 16:1, 11:2, 살후 3:6, 9, 12, 14). 바울은 그의 가르침 안에 있는 그의 권위를 사용했다. 그는 각처 각 교회에서 같은 것을 가르쳤고(고전 4:17 하), 교회들은 그가 말한 것을 따랐다. 이것은 바울의 대표 권위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권위는 항상 합당한 가르침을 뒤따른다. (신약의 인도 직분과 사도들의 가르침, 2 장, 32-33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과 요한이 행사한 ... 인도 직분은 조직상의 인도 직분이 아니었다. 처음 열두 사도가 주 예수님에 의해 세워졌지만 조직되지 않았다. 주 예수님은 열둘을 동등하게 세우셨다. 신약에서 우리는 ... 조직을 볼 수 없다. 모든

주요 교파에는 위원들과 위원장이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그들의 계급 조직의 수장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신약 사역의 인도 직분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인도 직분이 아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위원들이 없고 위원장이나 최고 지도자도 없다.

게다가 이 인도 직분은 사역자들의 움직임을 다루는 인도 직분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다루는 인도 직분이다. 이처럼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다루는 인도직분은 사역자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그들을 제한한다. 신약성경에서 때때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 중 어떤 이에게 어떤 곳으로 가라고 말하거나(고전 4:17) 어떤 곳에 남아 있으라고 말했다(딤후 1:5).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해서, 인도 직분은 사역자들의 활동에 행사되지 않는다. 누구도 주님을 위한 일에 어떤 통제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에게 알래스카로 갈 부담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인지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누구도 그가 가거나 가지 않는 것을 통제하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이 주님과 몸과의 교통을 통해 주님에게서 온 것인지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일꾼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제한도 행사되지 않지만, 만일 누군가가 일어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빗나간 것을 가르친다면, 인도 직분에 있는 이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다르게 가르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 신약에 나타난 인도 직분은 동역자들의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로 사역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주님의 회복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누가 그토록 많은 동역자와 봉사자의 활동을 총괄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의 활동을 총괄할 위원회나 선교부가 없다. 누구도 사역자들의 활동을 총괄할 위치에 있지 않다.

사역자들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랑스러운 성도들과 교통해야 한다. 성도들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사역자들은 자신이 현재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될 것이다. ... 홀로 가야 할지 아니면 몇몇 다른 이들과 함께 가야 할지도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꾼들이 무엇을 가르칠지, 무엇을 전할지는 제한받아야 한다. 이 방면에서는 인도 직분이 매우 필요하다.(신약 경륜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19 장, 274-27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인도 직분과 사도들의 가르침, 2 장;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8 장*

## 6/8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행 26:19

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 엡 3:2-4, 8-9

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4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 잠 29:18

18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던지나 율법을 지키는 이는 행복하다.

---

#### 딤후 3:15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상은 창세기에 있는 아담의 첫 번째 이상에서부터 교회의 나타남인 새 예루살렘에 관한 궁극적인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

우리는 이전의 모든 광경들을 내포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마지막 광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최신의 궁극적인 이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상을 긴밀히 따라야 한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따르지 않으며 이상을 따르고 있다. ... 즉, 하나님의 완결된 이상을 따르고 있다.(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인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 1 권, 새 길의 실행을 위한 이상과 구체적인 단계들, 2 장, 74-7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인도 직분 아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계시에 의해 제한받아야 한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거나 강조하거나 조장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인도 직분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혼란이 없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아닌 것들을 강조하는 가르침들이 들어올 위험성이 있다. 우리는 ...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약 경륜을 가르쳐 알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을 배움으로써, 성도들은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 주님의 새 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이상, 곧 신약 경륜의 계시에 의해 제한받아야 한다.

신약 사역에서의 인도 직분은 사실상 통제하는 한 사람이 가진 인도 직분이 아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사람들과 일들을 통제한다는 관념을 거부한다. 우리는 분명 어떤 인도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한 사람이 통제하는 그런 인도 직분이 아니다. 그 대신 하나의 통제하는 계시가 인도 직분을 갖고 있으며, 이 계시는 계시를 가져오는 이들을 통해 수행되는 한 사역 안에 있다. ...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계시가 우리를 통제하고 제한한다.

우리 가운데의 사역은 어떤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유일한 신약 사역, 곧 교회 시대에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의 사역이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유일한 사역을 통하여 움직이시며, 우리 모두는 이 유일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람들의 집 문을 두드리러 나가는 것도 이 유일한 사역의 일부이다. 인도 직분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어떤 인물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인도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갖고 있는 인도 직분이다. 이 계시가 우리를 제한하고 지시하고 통제하여 혼돈과 분열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신약 경륜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19 장, 275-276, 278-279 쪽)

‘회복’은 손상이나 손실을 입은 후에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되거나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교회의 회복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은 어떤 것이 원래 있었는데 유실되었거나 손상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수 세기에 걸친 교회 역사를 통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복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 관한 우리의 이상은 현재의 상태나 전통적인 관습에 지배받아서 안 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표준에 지배받아야 한다.(신약의 결론, 14 권, 교회, 230 장, 13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주님을 섬기는 이의 이상 · 사역 · 인도, 1 장

6/9 금요일

### 아침의 누림

엡 4:3-4

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골 3:10-11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

시 119:105

105 1 (눈)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고전 4:1-2

1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겨야 합니다.

2 여기에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

주님의 회복은 세 가지 주된 항목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항목들은 우리가 교회생활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먼저,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난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거듭 분열되었다. 18 세기에 친첸도르프 백작(Count Zinzendorf)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의 필요성을 보았으며, 일 세기 후에 영국의 형제회는 몸의 하나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보고서 어느 정도 몸의 하나를 실행했다. 그런 다음 1920 년에 주님은 중국에서 워치만 니 형제님을 일으키셨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 주셨다. 니 형제님은 자신이 본 것을 글로

옳았고, 우리는 그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이후부터 중국에서 많은 청년 성도들이 몸의 하나를 증언하는 입장을 취했다. 주님의 회복은 인종이나 문화나 교육 수준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는 나누어질 이유가 없다. 이것은 신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90 년, 3 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 영문판, 259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둘째로, 주님의 회복은 어떤 교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그분은 중심이시며 또한 둘레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육십 년 동안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 교회, 하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많은 출판물을 내게 하셨다.

셋째로,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되기를 바라신다. 거의 모든 기독교 단체가 성직자-평신도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 사실상 성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대치한다. 이렇게 대치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기능과 역량과 유용성을 사라지게 하고 죽인다. 이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모든 지체들의 은사와 기능과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엡 4:11-16).(위트니스 리 전집,

1990 년, 3 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 영문판, 259 쪽)

귀환한 포로들의 인도자들은 왕족인 스룹바벨과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라와 평범한 가문 출신인 느헤미야였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모든 인도자들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느헤미야는 아무런 지위가 없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다. 성경에는 그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암시가 없다. 그는 높은 수준의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궁전에서 일했지만 왕실의 종이었을 뿐이다.

느헤미야로 끝나는 회복의 책들의 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점은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의 문제이다. ...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세 명의 인도자가 언급된다. 그들은 모두 뛰어난 인도자들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인도자는 느헤미야였다. 느헤미야는 인간 역사에서 완벽한 인도자이자 최상의 인도자였다. 오직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인도 직분 아래서야 이스라엘이 재조성되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증거, 곧 이방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지 보여 주는 예표이다. (느헤미야 라이프 스타디, 5 장, 31, 3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느헤미야 라이프 스타디, 1-2, 5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90 년, 3 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 영문판, 258-265 쪽*

6/10 토요일

### 아침의 누림

느 8:2-3

2 일곱째 달 초하룻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회중, 곧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수 있는 모든 이 앞에 가져왔다.

3 그는 '물 문' 앞 광장에서, 동이 틀 때부터 한낮까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수 있는 이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였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눅 10:1

1 이런 일들 후에, 주님께서 다른 칠십 명을 임명하시고, 자신이 가려고 하시던 모든 동네와 모든 장소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시며

롬 12:5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

고전 12:24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엡 4:11-12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느헤미야는 한 나라의 우두머리이자 통치자였지만 전혀 야심이 없었다. 그가 에스라가 필요함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이것을 보여 준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재조성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을 인식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명망 높은 에스라가 아직 살아 있었으므로, 느헤미야는 기꺼이 에스라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였다. 오늘날 많은 인도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 느헤미야는 에스라 없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느헤미야 라이프 스타디, 5 장, 34-35 쪽)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증거의 수인 둘의 원칙에 따라 둘씩 둘씩 보내셨다(눅 10:1). ... 혼자 가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것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어지는 것은 몸의 원칙에 따라 보내어지는 것이다. 신성한 원칙에 따라, 주님은 그분의 종이 개인주의적인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아론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모세와 짝을 이루도록 아론을 예비하셨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9 장, 118-119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이러한 조화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와 조화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내셨음을 지적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려고 나왔을 때 개인주의적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항상 그와 조화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절이 이를 입증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에는 디모데도 바나바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소스데네를 짝으로 취했다. 그는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형제를 짝으로 취함으로써 원칙을 지켰다.

주님을 섬길 때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신성한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다. 오늘날 신약 경륜 안에서 개인주의적이 되는 것은 몸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단체의 원칙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함으로써 항상 우리와 조화될 다른 지체를 적어도 한 명은 얻어야 한다. ... 몸은 개인이 대표할 수 없다. 신성한 원칙에 따르면, 몸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일은 언제나, 다른 지체들과 조화된 지체들이 수행한다. 그러나 조화되기는 어렵다. 모세와 아론의 경우에, 동생은 인도자였고 형은 따르는 이였다. 누군가와 조화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육신의 형제와 조화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며, 더 젊은 사람이 인도자인 그러한 상황에서는 조화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어려운 짝을 안배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짝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제한도 없고 보호도 없고 안전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조화시키시려고 안배하실 때, 종종 이러한 안배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 대부분의 시간에는 그러한 안배가 유쾌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일부 시간에는 불쾌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쾌함이 우리의 보호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묶이기는 매우 어렵다. ...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은 우리가 고용한 사람과 매우 다르다. 모세는 아론을 고용하지 않았고 바울은 디모데를 고용하지 않았다. ... 주님의 회복 안에는 몸을 건축하는 참된 일이 긴급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의 일은 오직 조화된 동역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다. ...

하나님의 위임은 이러한 조화에 의해 수행된다. (출애굽기 라이프스타디, 9 장, 119-12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9 장; 디도서 라이프 스타디, 1 장

###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3장, 477-478쪽

6/11 주일

아침의 누림

느 8:1-12

- 1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 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요청하였다.
- 2 일곱째 달 초하룻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회중, 곧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수 있는 모든 이 앞에 가져왔다.
- 3 그는 ‘물 문’ 앞 광장에서, 동이 틀 때부터 한낮까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수 있는 이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였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 4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무 단상에 섰는데, 그 오른쪽으로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으로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 섰다.
- 5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이 있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 6 에스라가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온 백성은 모두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숙여 절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인들 또한 백성이 율법을 이해하도록 도왔으며, 백성은 제자리에 서 있었다.
- 8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뜻을 밝혀 주었기 때문에 백성은 읽어 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 9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와 백성의 이해를 도운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다.
- 10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포도주를 마시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이에게 몹을 보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 11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온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 12 온 백성은 저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몹을 보내 주며 크게 기뻐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8:28-39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0-21 장***2 단계-주제별 연구****The Old Man Crucified and Buried with Christ**

Scripture: 로마서 6:1-5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Romans*, msgs. 11, 34Supplemental Reading: *Christ and the Cross*, ch. 13

Hymn: 482

[churchinnyc.org/bible-study](http://churchinnyc.org/bible-study)**찬송: 840 주여 나를 내 자아와 육에서 (中:606)**

- 1 주님 나를 내 자아와 아담 본성서 구해 성도들과 건축되어 영광 나타내게 해 나의 특이함과 교만 단독에서 구원해 나를 주 순종케 하여 안식처 삼으소서.
- 2 흐르는 생명 공급이 자라고 변케 하네 나의 위치에서 힘써 성도들 온전케 해 다른 사람 밟지 않고 내 본 것 아는 것 다 주 위해 바쳐 일하여 주님의 몸 건축해.
- 3 지식과 체험 있다고 교만할 수 없으리 순종하며 겸손하게 몸에 상합되겠네 머리를 붙들으로써 온 몸이 자라나니 마디와 힘줄 통하여 공급받고 연합돼.
- 4 그 영으로 강하게 돼 속사람에 이르네 주의 넓고 깊은 사랑 헤아릴 수 없도다 그리스도 풍성 누리 주 총만에 이르러 온전한 사람 이룰 때 몸이 건축되겠네.
- 5 주의 몸 된 그 집에서 건축되기 원하니 단체적인 그릇으로 주 영광 표현하리 주의 신부 예루살렘 머지않아 나타나 빛나는 등잔대 통해 주의 가치 보겠네.